



李 KIA의 든든한 버팀목 金

종범 상훈



**500도루·1천득점, 1천경기 출장 KBO 기념상
영양가 만점 활약... 후배들과 가을잔치 채비**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과 김상훈이 8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유영구 총재로부터 뜻깊은 상패를 받았다.

팀의 최고참 이종범은 최소경기 500도루·1천득점, 통산 12번째 2천500루타 그리고 주장 김상훈은 1천경기 출장에 대한 기념상을 받은 것이다.

이종범은 올 시즌 '불혹의 투혼'으로 자신의 기록을 새로 쓰며 프로야구 역사를 바꾸고 있다. 지난 겨울 은퇴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종범은 7일 현재 0.286의 타율과 26타점 28득점 9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지만

KIA 이종범이 8일 유영구 KBO 총재로부터 받은 최소경기 500도루·1천득점, 통산 12번째 2천500루타 기념상패.

공·수에서 든든한 마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용규·김원섭·채종범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서 외야를 호령하고 있는 이종범은 20년 터울의 안치홍과 테이بل 세터로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3번 타자로 나서 공격에 힘을 보태는 등 다양한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KBO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딴 피규어(Figure)를 상패로 받은 이종범은 팬들이 만들어준 상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팬들의 응원도 있었기에 변함없이 그라운드에서 야구 열정을 다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종범은 "팀의 최고참으로서의 해야할 일이 많지만 지난해보다 팀 성적이 좋아서 큰 부담없이 야구를 하고 있다"며 "후배들도 절실한 심정으로 야구를 배워나가고 뛰면서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하늘 같은 선배 이종범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선 후배 김상훈의 심정도 남달랐다.

10년째 KIA의 안방을 지켜오고 있는 김상훈은 올 시즌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종범이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아 마음고생, 몸고생 하고 있다"고 안쓰러운 마음을 보일 정도로 주장 김상훈의 책임감은 막중하다.

팀이 3연패로 2009년 일정을 시작하는데 자신의 타격 부진이 길어지면서 시즌 초반 김상훈은 밤까지 거를 정도로 많은 부담감을 느꼈다.

7일 현재 김상훈의 타율은 0.227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김상훈의 집중력은 놀랍다. 필요한 순간에 터지는 영양가 만점의 타력으로 김상훈은 8홀런 44타점을 기록하며 주장의 힘을 보여주었고 있다.

44타점은 김상훈의 60타점에 이어 팀내 2위다.

최근 팀이 하락세를 보이며 속앓이를 했던 김상훈은 '심기일전'의 뜻으로 8일 머리를 짧게 자른 채 경기장에 나섰다. 특별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상훈의 뜻이다.

개인보다 팀을 강조하는 이종범과 김상훈은 최고참과 주장으로서 KIA 가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컵, 감독님 영전에 바칩니다
놓은 뒤 간담이 발견돼 투병해오다 4일 별세했다.

故 조성욱 감독의 동의대가 8일 전국대학야구 히계리그 결승에서 성균관대에 2-1로 승리했다. 행거 세리머니도 없이 선수들은 목동구장 그라운드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땀과 눈물의 목병이다. 부산고에서 메이저리그 추신수를 길러낸故 조성욱 감독은 지난 4월 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동의대를 정상에 올려 /연남뉴스

프로야구 우천 경기취소?

홍세완에게 물어봐!

8일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날씨였다.

전날 광주·전남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 경기를 쉬었던 선수단은 8일 훈련전 흐린 하늘이 이어지자 기상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날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달달이 내아수 홍세완도 여겨져 날씨를 묻는 이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바쁜 오후를 보냈다.

홍세완은 KIA에서 걸어다니는 기상청으로 통한다. 즉집계 예보에 백전노장 이종범도 훈련에 앞서 홍세완을 찾아 날씨를 먼저 물어볼 정도다.

두 차례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홍세완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낀다. 비가 많이 내린 어제도 '아이고'를 입에 달고 턱아웃을 돌아다녔다.

날씨는 묻는 질문 공세에 홍세완은 "무릎이 아프지 않은 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고 예보를 했다.

'경기 한다'는 홍세완의 말이 떨어진 뒤 얼마 되지 않아 먹구름이 짙게 깔리던 무등경기장에는 햇빛까지 내비쳤다.

결국 KIA 선수들은 후덥지근한 날씨와 씨름하며 시뮬레이션 수비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 일정을 진행했다. 7일 현재 KIA는 전체 81경기 중 78경기를 소화했고, 1위를 달리고 있는 SK는 우천취소 경기 없이 81경기 전 경기를 치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존' 신지애, 세계랭킹 1위 도전

US女오픈 출전 포부 밝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1위에도 도전하겠다"

9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US여자 오픈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세계랭킹 1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신지애는 8일 대회가 열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힐의 사우컨밸리 골프장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 목표는 신인왕이다. 그러나 10월, 11월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만 아직 세계 1위에 오른 선수는 없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신지애는 "아마 내가 세계 1위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애는 세계랭킹 포인트 8.33점으로 로

레나 오초야(멕시코·13.02점), 청야니(대만·9.49점)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다. 따라서 상금과 올해의 선수상, 신인왕 부문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지애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 부문 권하기에 들어가고 세계 랭킹에서는 1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신지애는 자신감 회복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신지애는 "3월 첫 우승 이후 오히려 성적도 기록이 심했고 자신감을 잃었다. 그러나 웨그먼스 대회 우승 이후 자신감을 되찾았다"면서 "특히 말을 안 들던 퍼트가 많이 좋아졌다. 이번 대회 장소가 그린리 빠른 편인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신지애는 같은 달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 2위를 제외하고는 10위권 내에 들지 못하다가 6월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3위에 이어 웨그먼스 LPGA 우승으로 감각을 되찾았다.

/연남뉴스

광주·전남 골프장 '조특법' 덕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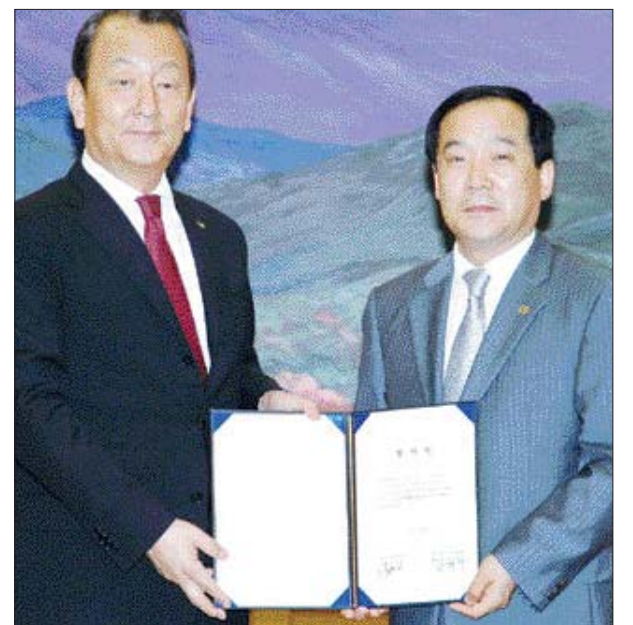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감면에 그린피 인하 혜택
올해 1~4월 내장객 23만8천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

올해 광주·전남지역 골프장 내장객 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실시된 이후 그린피 인화로 이어지면서 내장객이 증가세를 보였다. 조특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함평다이내스티·골드레이크·남광주·아크로·파인힐스·광주·승주·클럽 900 등 광주·전남지역 8개 골프장 이용객이 총 20만4천106명이었으나 조특법 시행 후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23만7천876명으로 16.5%(3만3천770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프로야구 올스타전 성공개최 협약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오른쪽)과 유영구 KBO 총재는 8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는 25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었다.